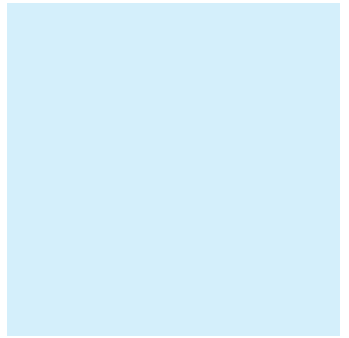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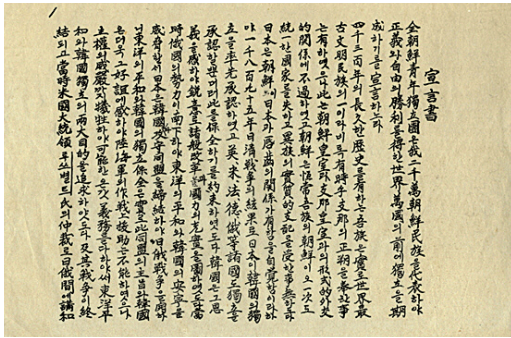




특집 _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 연중 이어져
 화제 _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추진 본격화...사상 첫 공동 개최 도전



‘김치 담그기’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 전통 음식문화 ‘장 담그기’

가정 중심으로 전승돼 특정 보유자, 보유단체는 인정 안 해

콩을 발효해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기술인 ‘장(醬)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장이라는 음식뿐만 아니라 재료를 준비해 장을 만드는 전반적 과정을 아우르는 ‘장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장 담그기는 한국에서 폭넓게 전승되는 전통 음식문화 중에는 김치 담그기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우리나라는 콩을 발효해 먹는 ‘두장(豆醬) 문화권에 속하며, 삼국시대부터 장을 만들어 즐겨 먹었다고 알려졌다. 조선 시대에는 왕실에서 장을 보관하는 창고인 장고(醬庫)를 두었고, ‘장고마미’라 불리는 상궁이 장을 담그고 관리할 정도로 장을 중시했다.

장 담그기는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순으로 진행한다. 메주를 띄운 뒤 된장과 간장이라는 두 가지 장을 제작하고, 지난해에 사용하고 남은 씨간장에 새로운 장을 더하는 방식은 한국만의 독창적 문화로 평가된다. 장 담그기는 이처럼 고대부터 이어져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우리나라 음식 조리법과 음식문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형유산이며, 한국 주거문화·세시풍속·기복신앙·전통과학 요소와 긴밀히 연관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많은 한국인이 전승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세대 간 계승이 활발하다는 점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요인이 됐다.



장 담그기.

다만 문화재청은 장 담그기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전승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인정되지 않은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아리랑, 제다(製茶),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製鹽), 온돌문화가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생활관습인 장 담그기의 무형유산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와 전승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



장 담그기 중 ‘장 가르기’.



04



06



24



- 02 한국의 열 '김치 담그기'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 전통 음식문화 '장 담그기'
- 04 특집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 연중 이어져
- 06 화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추진 본격화... 사상 첫 공동 개최 도전
- 08 기획 3·1운동 마중물 '2·8 선언'... 침략국 수도서 목숨 걸고 '독립' 외쳐
- 10 글로벌 코리안 아시아인 최초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받고 시상식 사회도 맡은 샌드라 오 아프리카·인도 등지에서 22년 넘게 봉사활동 펼치는 안승진 씨 미드 '워킹데드' 총괄제작자 재미동포 2세 안젤라 강
- 12 한민족 공감 미국서故 김복동 할머니 추모 물결... "함께하면 못 이룰 것 없다"
- 13 지구촌 통신문 도쿄서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 거행
- 14 동포소식 "유관순 열사의 정신은 미국에 뿌리내린 전 세계 이민자들의 DNA" 외
- 17 동포 캘린더 사할린 주 향토박물관, 한인사 한눈에 담은 컬렉션 출판 외
- 18 유공동포 탄생 100년 맞은 김영옥 대령... 보훈처 '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
- 19 주목! 차세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자리에 모인 유럽 한인 차세대
- 20 OKF 뉴스 '글로벌한상드림'에 재외 동포 기부 잇따라 외
-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 22 동포문학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
- 24 고향의 맛·멋 "겨울축제 역사 새로 썼다" 강원도 '화천산천어축제' 대비
- 26 재단공지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 연중 이어져

지난 100년 발전 성찰하고 미래 100년 비전 모색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사업이 연중 계속된다. 기념사업은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쳐 기념사업을 확정했다. 총 655억 예산이 투입될 기념사업은 3·1운동과 임정 수립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 이후 대한민국 100년의 발전을 성찰하고 미래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사업들을 아우른다.

독립운동의 기억·기념...

3월 1일~4월 11일 '국민통합대축제'

위원회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3월 1일과 임정수립기념일인 4월 11일까지를 '국민통합대축제' 기간으로 정해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 기간 100개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고 '독립의 횃불'을 릴레이 봉송한다. 독립운동과 연관된 해외 기념행사도 열린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제1차 한인회의가 재현된다. 서재필 박사 등은 당시 필라델피아 리틀극장에서 회의를 연 뒤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행진했다. 중국 상하이(上海)에서는 4월 11일 국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식이 열린다. 일본 도쿄(東京)에서는 2월 8일 재일동포들과 함께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보훈처는 국내외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해 추가



1

유공자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일제강점기 수형 기록 전수조사에서 새로 4천400여 명이 발굴됐다. 보훈처는 유공자 포상을 위한 최소 수형·옥고 기준을 폐지하고 실형 여부가 아닌 활동 내용을 판단 기준에 추가하는 등 포상범위와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유관순 열사 등 아직 묘소가 확인되지 않은 독립유공자들은 후손의 DNA를 확보해 묘지 확인을 추진한다. 지난해 3월 현재 독립유공자 1만4천879명 중 7천322명의 묘소가 미확인 상태다. 각종 '기억의 공간'도 조성된다. 백범 김구와 윤봉길, 이봉창 등이 잠든 호창공원을 독립공원화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조성한다. 임정의 항일 군사작전을 담당했던 광복군 총사령부를 중국 충칭(重慶) 현지에 복원하는 사업과 임정 초대 재무총장인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 전시관 개관 등도 추진된다.

보훈처, 국외 독립유공자 발굴 위한 '범정부 협의기구' 추진

보훈처는 특히 국외 지역의 미발굴 독립유공자를 찾기 위한 범정부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5일 국외 독립운동가 찾기 및 활동 규명 계획에 언급, "해외지역 사료 수집을 위해 해외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료 수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러한 범정부 협의기구와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2

함께 민간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를 지원하고 다양한 국내외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을 위한 민간단체 학술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지역 독립운동 사료 수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한 사료 수집, 국외 대학, 연구소 및 주요 문서 보관소와 업무 협약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별, 분야별 현지 학자, 전문 연구자 등을 사료 수렴위원으로 위촉해 상시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와 민간 학술단체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존처 관계자는 “해외 독립운동 자료를 확대해 가고 있다”며 “최근 프랑스 파리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 같이 현지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자료 발굴을 한다면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많은 해외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성과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정 이후 100년 발전·성찰하고 미래 100년 비전 제시

3·1운동과 임정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3월에는 한국독립운동이 동북아 평화에 미친 영향 등을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이 열린다. 임정 수립 이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100년의 독립·민주주의의 운동사를 주제별로 정리하는 ‘민주·인권·평화박람회’도 예정돼 있다. 여성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전시와 공연,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복원하는 세미나 등이 열린다.

일제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거주지인 우토로에는 평화기념관이 조성된다. 위원회는 올해를 미래 100년 준비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향후 100년을 전망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가칭 ‘미래100년위원회’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 



3



4

1. 국가보훈처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는 1월 6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의 조감도.
2. 이낙연 국무총리가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제3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3.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4. 프랑스동포들이 찾아낸 잊혀진 독립운동가 홍재해(1898~1960)가 묻힌 파리 근교의 무덤.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추진 본격화... 사상 첫 공동 개최 도전

‘평화·화합의 올림픽’ 대의명분 갖춰... 바흐 IOC 위원장, “역사적 제안”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남북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에 “역사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바흐 IOC 위원장은 2월 15일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일국 북한 체육상과 ‘3자 회동’에서 2032년 올림픽 유치 의향을 밝히는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서 이렇게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젠테이션은 도종환 장관이 10분 정도 진행했다.

도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공동 유치 시 경기장 분산 개최 방안을 설명했다. 바흐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토론한 건 스포츠가 또 한 번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전”이라면서 “IOC가 이런 제안을 높이 산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IOC는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올림픽 정신에 근거해 IOC의 전문성을 여러분께 빌려드리겠다”며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환영했다. 남북은 2032년 올림픽을 공동 유치하기로 하고, 서울과 평양을 각각 유치 신청 도시로 확정 상태다.

2020년 도쿄올림픽 女농구·女하키·유도·조정 등 4개 종목 ‘남북 단일팀’ 합의

도종환 장관과 김일국 체육상, 바흐 위원장 3자 회동에서는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여자농구와 여자하키, 조정, 유도 등 4개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는 건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사상 처음 출전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다. 작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여자농구와 카누, 조정 등 3개 종목에서 단일팀으로 참가한 걸 뛰어넘는 국제대회 단일팀 출전으로는 최대 규모다. 남북은 올림픽 예선전 단계부터 단일팀으로 출전 쿼터 확보에 나서며, 이른 시일 안에 합동훈련을 시작한다.

서울, 2032년 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 44년 만에 유치 도전

한편 대한체육회는 2월 1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동·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서울을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49표 중 과반인 34표를 획득해 유일한 경쟁 도시인 부산광역시를 따돌렸다. 서울시는 이로써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이래 44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 북측의 유치 신청 도시로는 평양이 사실상



3



4



2

1.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월 15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도종환(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과 3자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토마스 바흐(가운데) IOC 위원장이 2월 15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남북한 체육계 인사들과 회동하고 있다.
3. 박원순 서울시장이 2월 1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을 위해 열리는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서울시가 유치도시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4. 지난해 8월 26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 시티 조정·카누 경기장에서 열린 카누용선 500미터 여자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기뻐하는 모습.

결정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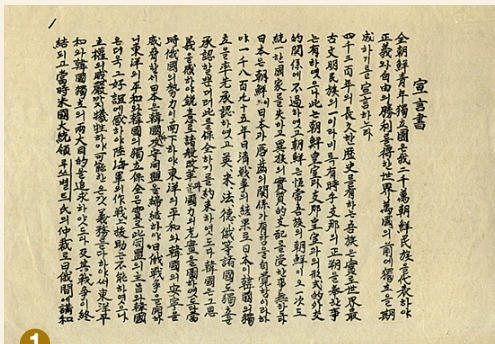
이에 따라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평화와 화합의 '통일 올림픽'을 실현한다는 대의명분은 향후 유치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개최까지 10년 이상 남은 데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실제 성사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미 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데다 교통, 숙박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개최 파트너인 평양과 최단 거리에 있고, 그간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을 발표했고, 작년 11월에는 남북협력 추진단을 신설했다. 올해는 남북협력기금 4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일한 경쟁자였던 부산시는 이날 전격적으로 서울과 공동 개최를 제안했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남북 정상은 작년 9월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2개 이상 도시나 국가가 공동 개최한 사례는 없었다. 일부 경기장을 공식 개최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분산한 사례만 있을 뿐이다. 올림픽현장 34조는 1국가 2개 이상 도시와 2국가 이상 등에서 경기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동 개최(Co-hosting)'란 개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공동 개최가 가능하고, IOC(국제올림픽위원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3·1운동 마중물 ‘2·8 선언’ ... 침략국 수도서 목숨 걸고 ‘독립’ 외쳐

역사의 현장 도쿄 조선 YMCA회관... 지금은 세탁소 등 입주한 상업 건물



1. 2·8 독립선언서 원본(사진, 독립기념관 제공)
2. 2·8 독립선언에 가담했던 독립운동가들이 1920년 출옥을 기념해 찍은 사진. 가장 왼쪽에 흰색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인물이 최팔용, 가장 앞줄 우측에서 두 번째 인물이 최승만이다. (사진, 재일본한국YMCA 2·8독립선언기념자료실 제공)
3.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간다(神田) 재일본한국YMCA회관의 2·8독립선언 기념자료실에 설치된 선언문 전시물.
4. 2·8독립선언이 일어났던 재일본도쿄조선YMCA회관의 과거와 현재 모습.
5. 재일본한국YMCA회관 앞에 설치된 2·8독립선언 기념비.

3·1운동이 일어나기 20여 일 전 일본의 수도 도쿄의 간다(神田)에서 세계 역사에서 예를 찾기 힘든 ‘독립선언’이 행해졌다. 식민지시대 피지배국 민중들이 지배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감행한 ‘2·8독립선언’이다. 조선에서 일본에 건너온 유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외친 이 조선 독립의 함성은 곧이어 조국에서 펼쳐진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도쿄 독립선언이 발표된 1919년 2월 8일은 30년 만의 대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눈이 내렸다. 당시 일본에 있던 한반도 출신 유학생은 678명. 조선 유학생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재일본도쿄조선YMCA회관’(현 재일본한국YMCA회관)에는 도쿄의 모든 조선 유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400~600명이 모여들었다. 1906년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와 세운 재일본도쿄조선YMCA회관은 망년회 등으로 당시 조선 유학생들이 자주 모였던 곳이다. 종교 단체인 만큼 상대적으로 일제의 감시가 느슨해 웅변대회가 자주 열렸고 이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계기가 됐다. 독립선언이라는 ‘거사’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19년 1월 6일이었다.

웅변대회 중 독립을 열망하는 연설이 이어지다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최팔용(와세다대), 서춘(도쿄고등사범), 백관수(세이소쿠영어학교) 등 10명이 실행위원으로 뽑혔다. 10명의 실행위원 중 1명이 질병을 이유로 사퇴하고 이후 이광수(와세다대) 등 2명이 추가돼 실행위원은 11명이 됐다. 당시 선언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이후 독립가로 활동한 김마리아(도쿄여자학원), 황에스더(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 등 여성들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다. 선언문은 당시 소설가로 이름을 높였지만, 후일 친일파로 변절했던 이광수가 작성했고, 일본어와 영어로도 번역돼 비밀리에 인쇄됐다. 드디어 2월 8일이 되자 선언문은 제국의회 의원, 각국 대사관, 내외신 신문사 앞으로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와 함께 배달됐다. 이어 오후 2시, 선언문이 발표됐다.

‘민족자결’ 세계 흐름 먼저 읽은 유학생들... 일제에 ‘피의 싸움’ 선언

당시 유학생들은 어떻게 ‘적(敵)’의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서, 그것도 조선 땅에서보다 먼저 독립선언을 외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집결 장소가



3



4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재일본도쿄조선YMCA회관이었고, 조선보다 일본이 오히려 경찰의 감시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당시 도쿄가 한성(서울)보다 외국의 소식을 접하기 쉬운 '국제도시'였던 것도 이곳의 유학생들 사이에서 독립 열망을 달아오르게 한 요인이다. 일본 유학생들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퍼진 민족 자결주의의 흐름을 먼저 파악할 수 있었고, 곧 열릴 파리 강화회의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는 사실도 일찌감치 알게 됐다. 유학생들은 당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개혁을 주창하는 일본 내의 흐름, 즉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영향을 일부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독립선언문은 3·1독립선언서보다 더 강경하고 투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선언문은 "한일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교란한다"면서 독립을 주창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해 '영원의 혈전'(血戰; 피의 싸움)을 선언한다.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우리 민족의 책임이 아니다"고 힘을 주며 무력투쟁을 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선언문은 이후 조선땅으로 전해져 3·1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됐고, 도쿄의 독립선언은 같은 뜻을 가진 조선인들에 용기를 줬 3·1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독립선언 발표한 YMCA는 세탁소... 기념비·자료실만 역사 지켜

도쿄 내 2·8독립선언의 흔적은 재일본한국YMCA회관(이하 도쿄YMCA회관) 앞에 세워진 2·8독립선언 기념비와 회관 한구석에 있는 2·8독립선언 기념 자료실 정도다. 독립선언이 발표됐던 장소인 재일본도쿄조선YMCA회관이 있던 곳에는 현재 세탁소와 사무실 등이 있는 상업시설이 들어섰다.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 2·8독립선언과 관련한 어떠한 기념물도 없다.

재일본도쿄조선YMCA회관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불에 탔고, 현재의 도쿄YMCA회관은 여기서 도보로 10분가량 떨어진 곳에 새 보금자리를 잡아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만세 외치다 끌려갔던 히비야 공원엔 '독도 도발' 전시관

유학생들이 선언문을 발표한 뒤 밖으로 나와 독립을 외친 히비야(日比谷)



5

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왕의 주거지인 황거(皇居) 인근에 있는 히비야 공원은 독립선언 직후인 2월 12일과 24일 각각 100명과 150명의 유학생이 모여 만세운동을 했던 곳이다. 이들은 공원 내 소음약당 앞에서 만세를 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히비야 공원 어디에도 2·8독립선언의 현장임을 알리는 기념물은 없다. 오히려 공원 한쪽에 있는 시세이(市政)회관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펴는 '영토·주권전시관'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다. 100년 전 조선 유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조선 독립을 외쳤던 곳에 이런 전시관이 들어선 데에는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 지금 일본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



아시아인 최초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받고
시상식 사회도 맡은
샌드라 오

“아프리카 · 아시아계 배우 · 감독이 대거 후보로 지명된 데 감사”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47·한국명 오미주)가 1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TV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또한, 시상식 공동 진행까지 맡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1월 13일 미국방송영화비평가협회가 주관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Critics’ Choice Awards)에서, 1월 27일 미국배우조합(SAG)에서 각각 TV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샌드라 오는 ‘BBC 아메리카’의 첩보물 ‘킬링 이브’(Killing Eve)에서 영국 첩보기관 M16 요원 역할을 맡았다.

코미디언 앤디 샘버그와 함께 사회를 맡은 샌드라 오는 시상식 인사말에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나 ‘블랙 팬서’ 등의 작품을 통해 아프리카 · 아시아계 배우 · 감독이 대거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 헌사를 보냈다. 이어 “나는 관객들을 쳐다보며 이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이곳에 오고 싶었다”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진짜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변화의 얼굴들. 그리고 이제 모든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샌드라 오는 2005년 골든글로브에서 의학 드라마 ‘그레이스 아나토미’로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골든글로브에서 아시아계 여배우가 두 차례나 트로피를 받은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정말 영광이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곳에 엄마, 아빠가 와 계신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히 한국어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캐나다 이민 2세대인 샌드라 오는 2005년에 ‘피플’지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70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배우로는 처음으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되는 영광을 누렸으며 모친이 예쁜 한복을 입고 참석해 화제가 됐다.

“봉사는 공유이자 나눔이며 누구나 해야 할 의무로 다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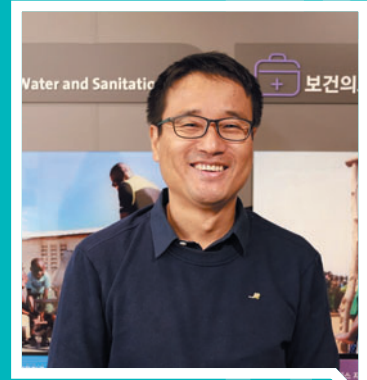
“사람들은 ‘봉사’ 앞에 ‘자원’이라는 단어를 붙여 쓰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의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 대륙을 무대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승진(48) 굿네이버스 니제르 지부장은 “봉사는 공유이자 나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부장은 “남는 자원들을 함께 나누지 않으므로써 기후변화, 환경재앙 등과 같은 자연 재앙이 온다”며 “나눔으로써 그걸 막을 수 있기에 봉사는 누구나 해야 할 의무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안 지부장의 이런 소신은 22년 넘게 시민단체(NGO)인 굿네이버스에서 국제개발 협



력 현장을 누비며 체득한 경험에서 비롯한다. 그의 첫 해외 파견은 2000년 8월.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은 르완다에 자원해 갔다. 신혼의 단꿈을 꾸던 아내에게는 '신혼여행 간다고 생각하라'며 설득했다. 당시 이 나라는 1994년 발생한 종족 간 학살(제노사이드)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때여서 마을 학교나 공공건물은 전범 재소자들을 가둔 교도소였을 정도로 어수선했다. 이곳에서 2년간 의료지원 사업을 펼쳤다. 르완다에서 케냐로 이동해 1년간 더 근무한 뒤 2003년 귀국한 그는 2008년 인도로 나가기까지 본부에서 국제협력팀장, 홍보부장 등으로 일했다. 틈틈이 인도네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자연재해 지역에 파견돼 구호에 나서기도 했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인도 지역에서 빈곤퇴치 사업을 펼쳤다. 2008~2013년 인도 지부장, 2013~2017년 케냐에서 아프리카권역 본부장, 2017년부터 현재까지 니제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5년간 인도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인도 지역의 빈곤퇴치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전개했고, 4년간 아프리카권역 본부장을 맡아 아프리카 13개 사업국을 개척하거나 관리해 성과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했다. 지난해 니제르에 파견돼 1만여 명의 농촌 지역 주민에게 교육, 보건, 식수와 위생, 여성권리 증진, 소득증대 등의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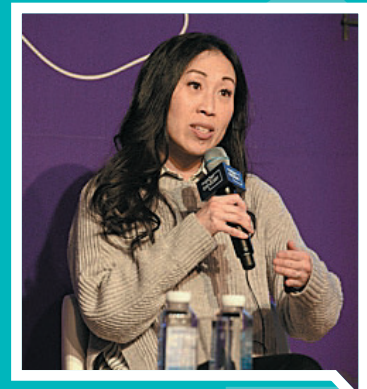


아프리카·인도 등지에서
22년 넘게 봉사활동 펼치는
안승진 씨

“시청자들은 신기하게도 좀비 드라마에서 사람을 찾아요”

전 세계에 좀비 신드롬을 일으킨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Walking Dead)' 시즌9 작가 겸 총괄제작자로 활약 중인 재미동포 2세 안젤라 강(42)은 '워킹데드' 인기비결을 "좀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워킹데드는 좀비를 싫어해도 보기도 하죠. 그 이유는 캐릭터에 있다고 봅니다"라고 설명했다. 핏기없이 썩은 얼굴에 인육을 즐기는 살아 있는 시체 좀비. 좀비라는 소재가 자극적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좀비 드라마에서 찾는 건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얘기였다. 그는 "시청자들이 캐릭터들의 선택, 시련 등 사람에 관한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젤라 강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역삼동 소셜베뉴 라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더 스토리 콘서트'에 참석해 '작가에서 제작자가 되기까지- 그들의 성공 스토리'란 주제로 350여 명의 한국 관객과 만났다. 한인 이민 2세대지만 한국을 처음 찾았다는 그는 한국에서의 '워킹데드' 인기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2010년부터 미국 케이블TV 채널 AMC를 통해 선보인 '워킹데드'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시작된 시즌9까지 9년째 이야기가 이어진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안젤라 강은 옥시덴털 대학에서 연극학과 영어학을 공부하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영화예술대에서 시나리오를 전공했다. 2011년 '워킹데드' 시즌2에 스토리 에디터로 집필진에 합류해 2014년 시즌5부터 공동제작을 맡았으며, 작년 1월 시즌9 총괄제작자로 승진했다. 



미드 '워킹데드'
총괄제작자 재미동포 2세
안젤라 강



미국서 故 김복동 할머니 추모 물결... “함께하면 못 이룰 것 없다”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빛속 추모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이자 여성인권운동가였던 김복동(1926~2019) 할머니의 지난했던 삶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김진덕·정경식 재단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위안부정의연대(CWJC)는 2월 3일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메리 광장에서 1월 28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한 김복동 할머니 추모제를 열었다. 세인트메리 광장은 미국 대도시에 처음으로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장소다.

김진덕·정경식 재단의 김한일 대표와 릴리안 싱, 줄리 탕 판사 등이 추모사를 읽었고 다민족 연대공동체로 구성된 CWJC 주디스 머킨스 대표도 고인의 생전 활동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김복동 할머니가 생전에 말하던 “우리가 함께하면 못 이룰 게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일본정부는 사과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주최 측은 정의와 평화를 외친 인권운동가인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생 헌신했던 위안부 피해 알리기 운동의 궤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로스앤젤레스 북쪽 글렌데일에서도 김복동 할머니의 타계 소식에 접해 추모행사가 개최됐다. 거주한미포럼(대표 김현정)에 따르면 미국 내에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설립된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앞 공원에서 열린 추모행사에는 한국인은 물론 중국계, 일본계, 아르메니아계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주말 내내 캘리포니아 일대를 휩쓴 겨울폭풍으로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참석자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김 할머니를 기리는 헌화 행렬을 이어갔다.

거주한미포럼은 “한국에서 온 가족,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가족, 포르타티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보좌관, 로라 프리드만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보좌관, 묘경 스님, 김요한 신부, 최재영 목사, 3·1여성 동지회 이연주 회장, 엘에이 나비 등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열린 고 김복동 할머니 추모제. (사진, 김진덕·정경식 재단 제공)

외국 주요 언론, 김 할머니 별세 관심 보도... NYT “불굴의 활동가”

외신들도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과 추모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AP통신은 “김 할머니는 전쟁 기간 일본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피해 사실을 공개한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오직 23명만 남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김 할머니의 지칠 줄 모르는 캠페인(위안부 관련 활동)이 자신과 같은 수천 명의 여성이 인내해야 했던 고통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그는 가장 거침없고 불굴의 활동가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 방송은 김 할머니가 생전 바라던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였으나 이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며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김 할머니의 분노를 전했다. [▶](#)

도쿄서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 거행

문 대통령 SNS에 글… “독립운동 역사 기리는 하루 됐으면”

오늘 해로 100주년을 맞은 ‘2·8 독립선언’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이 2월 8일 오전 일본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열렸다.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재일본한국YMCA에서는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주최,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먼저 동경한국학교 합창단원들의 ‘2·8 독립선언의 노래’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청길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은 개식사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독립선언과 주권회복을 외쳤던 2·8 독립선언은 일본은 물론 세계에 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심어줬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에서 “조국 독립의 성스러운 역사창조를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피 보훈처장은 대한민국의 염원을 거론하며 “통일을 향한 여정은 이웃 나라와 함께 걷는 길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르게 기억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광복회원, 애국지사 유가족, 유학생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같은 건물에 있는 2·8 독립선언기념자료실이 10층에서 2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전날 밤에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과 동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 전야제가 열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8 독립선언을 기리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00년 전 오늘, 600여 명의 조선 유학생들이 함박눈이 내리는 도쿄 조선 YMCA회관에 모여 일본의 심장 한가운데에서 독립 만세를 외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2월 8일 오전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재일본한국YMCA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2·8 독립선언의 노래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2월 8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재일본한국YMCA에서 2·8 독립선언기념자료실 확장 이전식이 열렸다. 왼쪽 두 번째부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청길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수훈 주일대사,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쳤다”며 “2·8 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으로 이어지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김정선 연합뉴스 도쿄 특파원

“유관순 열사의 정신은 미국에 뿌리내린 전 세계 이민자들의 DNA”

뉴욕 주 의회 ‘3·1운동의 날’ 결의안 대표 발의한 론 김 하원의원



미 뉴욕 주 의회가 채택한 ‘3·1운동의 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론 김 하원의원.

미국 뉴욕 주 의회가 1월 15일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는 한국계인 론 김 의원의 역할이 컸다. 주 하원에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론 김 의원은 앞서 1월 8일 한인 밀집지역인 뉴욕 퀸즈 플라싱의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뉴욕 주 차원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한다는 의미”라고 결의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관순 열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그 불굴의 저항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관순 열사의 정신은 한국인의 정신이기도 하다”면서 “나아가 아시아계를 비롯해 미국에 뿌리를 내린 전 세계 이민자들의 DNA”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방해 작업이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가 아닌, 세계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결의안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상당수 상·하원 의원들이 결의안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2012년 말 뉴욕 주의 선출직 정치인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1986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한 한인 1.5세 정치인이다. 2월 말 치러지는 뉴욕 시 ‘공익옹호관’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공익옹호관은 시장, 감사원장과 함께 뉴욕시의 3대 선출직으로 꼽히는 요직이다.

‘나는 홍콩으로 간다 2’ ... 홍콩 취업 가이드북 발간

취업 팁과 사례, 현지 적응 위한 생활정보도 담다



홍콩 취업 가이드북 ‘나는 홍콩으로 간다 2’.

주홍콩한국총영사관과 한국고용정보원은 홍콩에 진출하려는 한국 청년을 위해 현지 취업 정보 등을 담은 가이드북 ‘나는 홍콩으로 간다 2’를 발간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은 홍콩의 장점으로 중국 본토와 인접하고 아시아 주요지역이 비행기 4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탁월한 입지’, 중국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며 매일 수백 편의 항공이 중국 주요 도시를 오가는 ‘중국 진출 교두보’, 독립된 사법권·사유재산권·시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꼽았다. 또한, 무역·물류·금융·전문 서비스·관광 분야 경쟁력이 세계적인 ‘전략 산업 육성’, 수평적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경영환경이 조성된 ‘유연한 기업환경’도 요인으로 언급됐다. 법률·회계·컨설팅·호텔·미디어 분야의 취업 팁을 상세히 소개했고, 홍콩의 인프라 및 종사자 현황, 주요기관, 취업 프로세스와 사례 등도 담았다. 부록에 한국 청년들의 현지 적응을 위한 생활정보도 담겼다.

총영사관은 지난해 초 금융 분야 취업을 돕기 위해 ‘나는 홍콩으로 간다 1’을 발간한 후 홍콩 취업에 문이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엮어서 두 번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홍콩 유학생 및 국내 대학 일자리센터·취업지원센터에 배포하며 총영사관 홈페이지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동포 서미숙 시인, 경계인의 삶 ‘적도의 노래’ 출간

“우리말에 대한 열망과 갈증을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써 내려간 기록”



시집 '적도의 노래'를 출간한 서미숙 씨.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수필가 서미숙 씨가 첫 시집 '적도의 노래' (천년의 시작)를 최근 출간했다. 표제작 '적도의 노래'를 비롯해 '수카르노 하타 공항',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람 우체부가 배달해 준 편지' 등 58편의 시가 담겼다. 공광규 시인은 시집을 해설하며 "타국인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와 그곳의 일상 풍경을 시의 배경으로 활용해 고국에서 멀리 떠나온 이주민이 갖는 절대적 외로움과 그리움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유안진 작가도 서평에서 "갈망과 열정으로 매달려온 시인의 글쓰기는 자신의 몸부림이며 적도의 폭우와 한 오리 바람도 우체부였으니 두 나라에 사는 한 몸, 한 몸에 사는 두 문화의 화합과 갈등으로 탄생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인 서 작가는 1991년 싱가포르로 건너갔다가 1994년부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1992년 '아시아문학'의 해외문학 공모전에서 산문 '날개짓'으로 대상을 차지하며 국내 문단에 이름을 알렸고, 산문집 '추억으로의 여행'과 수필집 '적도에서의 산책' 등을 펴내는 등 디아스포라의 삶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는 "29년째 해외에 살면서 우리말에 대한 열망과 갈증을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써 내려간 기록"이라며 "애달픈 경계인의 삶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서 삶의 본질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시를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메리다市 '한국 이민자의 날' 제정

1세기 넘는 한국과의 우정 상징해 조각 '그리팅맨' 설치



멕시코 메리다 시의 '한국 이민자의 날' 제정 방침을 밝힌 레난 바레라 콘차 메리다 시장(오른쪽)이 김상일 주멕시코 한국대사(가운데)와 환담하고 있다.

멕시코 유카탄 주의 주도 메리다 시(市)가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기로 했다. 멕시코 경제일간지 '엘 피난시예로'(El Financiero)는 1월 21일 "메리다는 '한국 이민자의 날'을 축하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난 바레라 콘차 메리다 시장은 김상일 주멕시코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과 메리다 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뒤 한국 이민자의 날 제정 방침을 밝혔다.

콘차 시장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20세기 초 메리다 시는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한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면서 "지금도 2천 명이 넘는 한인이 유카탄 주에 거주하고 있고 2017년 12월 중심지의 한 도로를 '대한민국로'로 명명했다"고 소개했다.

영국 선박을 타고 1905년 4월 제물포항을 출발한 한국 이민자 1천33명은 5월 멕시코에 도착해 에네켄 농장에서 일했으며 중남미 한인사회의 뿌리가 됐다. 메리다 시는 1세기가 넘는 한국과의 우정을 상징하는 뜻으로 유명호 작가의 대형 조각상 '그리팅맨'(인사하는 사람)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인 1만 명 넘게 사는 美 연방하원 선거구는 14곳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지역 정치인 친한파로 만들어야 한인 목소리 커져”



앤디 김 미 연방하원의원이 KAGC 초청 행사에서 특강하고 있다.

“한인이 1만 명 이상인 미국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는 14곳으로, 이들 지역 정치인을 ‘친한파’로 만들어야 한인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인 풀뿌리 참여운동 단체인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김동석)는 1월 23일 미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별 한인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인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는 선거구가 모두 9곳이다. 현역 의원은 전원 민주당 소속이다.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주 연방하원의원 34선거구다. 5만9천800명이 거주한다. 이외 캘리포니아 주에서 플러턴·블레어·요바린다 등의 39선거구(4만7천700명), 어바인·터스틴이 포함된 45선거구(2만9천600명), 라미라다·다우니 등이 있는 38선거구(2만2천명), 말리부·샌타모니카·토런스·사우스베이 등의 33선거구(2만1천700명) 등도 한인이 2만 명 넘게 거주한다.

미 동부 쪽에는 뉴저지 9선거구(3만8천700명), 브루클린 남단 뉴욕 6선거구(3만6천200명), 워싱턴DC 동쪽인 페어팩스 등 버지니아 11선거구(3만명) 등이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선거구로 파악됐다. KAGC는 “한인 인구가 많을수록 지역구 의원들은 한인 사회 이슈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들 정치인은 한인사회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미관계 교두보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 인정… 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국내 체류 3년까지 가능 전망



국내 거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에 나선 고려인 청년들.

법무부가 고려인 4세대도 법적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하는 청년 동포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월 25일 밝혔다. 외국국적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얻는다. 부동산·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해 4세대는 외국국적동포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3세대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4세대 동포들이 비자·여권 문제로 부모와 생이별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4세대 이후 외국 국적 동포들도 자유왕래 및 국내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돼 동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할린 주 향토박물관, 한인사 한눈에 담은 컬렉션 출판

러시아 사할린 주립 향토박물관(사지)이 한인 생활사를 한눈에 담은 '사할린 한인사 컬렉션'을 출판했다고 2월 11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한인들이 박물관에 기증한 6천여 점의 목록 가운데 1945~2018년 사이의 가구, 문서, 서류, 사진 등 생활용품 616점을 수록했다. 사할린 한인사 연구 대가인 아나톨리 쿠진 러시아철도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이번 출판을 토대로 사할린 주 한인사회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UCLA·USC 한인학생회와 취업정보 공유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1월 11일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유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돕고자 UCLA(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USC(서던캘리포니아대) 등 이 지역 6개 주요 대학 한인학생회 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재미동포 기업 유학생 구직신청서 회람, 여름방학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캠퍼스별 찾아가는 취업지원 세미나, 재미동포 경제단체 네트워크 기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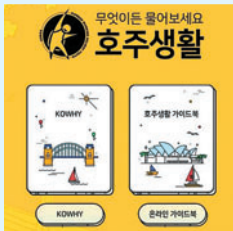


홍콩 한인상공회 신년회 성황... 300여 명 기업인 참석

홍콩 한인상공회는 1월 10일 홍콩 마르코 폴로 호텔에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기업인과 동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윤봉희(사진) 홍콩 한인상공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했으며, 한국 대학생들이 홍콩에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연간 60명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미리 맥스언(MAXEARN) 대표가 무역의 날 표창을 받았다.

중 선양 10만 조선족 구심 조선족협의회 30주년

조선족 10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 랴오닝 성 성도인 선양 시의 조선족 중심단체인 조선족협의회(회장 길경갑)가 1월 12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했다. 선양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선양시조선족기업협회, 월드옥타선양지회 등 산하 12개 협회와 선양시민족사무위원회, 선양시소수민족협회, 주선양한국총영사관 및 중국 전역의 조선족 단체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 호주진출 돕는 '생활·일자리 가이드북' 사이트 오픈

호주의 한인 청년 커뮤니티인 '코와이'(KOWHY)는 국내 청년들의 호주 취업 등 일자리 관련 정보와 현지 생활 정보를 담은 '호주 생활 일자리 가이드북' 웹사이트(hoju.korean.net)를 오픈했다고 2월 8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급여·연금·세금 등을 소개하는 '호주에서 일하기', 최저임금과 임금 체불 대처를 알려주는 '임금 문제'를 비롯해 집 구하기, 쇼핑 등 호주 생활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KBS, 임정 100주년 앞두고 해외동포상 수상자 선정

KBS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두고 제20회 KBS해외동포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현재 중국에서 활동 중인 두닝우(52) 씨, 미주광복회 회장직을 맡아 30여 년간 활동한 배국희(75) 씨 등 5명이다. 시상식은 3월 5일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3천만 원 상금과 업적 다큐멘터리 제작과 방송, 수상자 부부 국내 초청과 국내 시설 견학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성명	두닝우	배국희	박윤리	박기훈	김광환
연령	1966년생 (52세)	1943년생 (75세)	1940년생 (78세)	1956년생 (62세)	1946년생 (72세)
거주국	중국	미국	멕시코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직업	피아니스트	대한민국문화기공재단 이사장	홍익대학교 원로총장 회장	FC포털그룹 회장	제너리스프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c@okf.or.kr)로 보내주세요

탄생 100년 맞은 김영옥 대령... 보훈처 '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

재미동포로 6·25 전쟁 발발하자 자원입대 참전... 부친 김순권도 독립유공자

포털 사이트 MSN닷컴이 2011년에 선정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 명단에 유일하게 유색인종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 2차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김영옥 대령이다.

김영옥은 1919년 1월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부친 김순권(1886~1941)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으로 농업 이민을 떠난 이민 1세대이자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 등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였다. 또한 2016년 99세를 일기로 타계한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 의상 디자인계의 전설 윌라 김이 김영옥의 누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41년 징집대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미군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됐다. 혁혁한 전과를 올린 그에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1946년 전역해 코인 세탁소 사업을 펼치던 그는 모국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군에 자원입대, 불패의 신화를 남기며 중부전선 휴전선을 60km 북상시킨 주역이 됐다. 철의 삼각지대에서 중상을 입어 일본으로 후송됐다가 치료 후 복귀하기도 했다.

“전설적 전쟁영웅이자 위대한 인권운동가”

김영옥은 전장에서는 뛰어난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면서도 따뜻한 인간애를



국가보훈처가 2019년 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한 고(故)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1월 29일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발휘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힘썼다. 서울 삼각지에 '경천애인사'(敬天愛人社)를 세워 전쟁고아들을 돌보고, 1972년 대령으로 예편한 뒤에도 정계의 유혹을 뿌리치고 입양아·장애인·노인·청소년·빈민·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활동에 몸바쳤다. 2000년에는 고령임에도 미군에 의한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인사회 발전에도 힘써 한인건강정보센터·한미연합회·한미박물관 등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2003년에는 문대양 하와이주 대법원장, 다이빙 영웅 새미리, 야구선수 박찬호 등과 함께 '미주 이민 100년의 영웅 7인'에 뽑혔다. 2005년 2월 프랑스 최고 영예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고 그해 12월 하와이 호놀룰루의 국립묘지에 묻혔다. 같은 해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지난해 8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5번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는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 표지판 기공식'이 열렸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결에 따라 재미동포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가 처음 생겨난 것이다.

주한미군은 경기도 평택에 들어선 새 사령부의 본청 작전회의실을 지난해 6월 29일 '김영옥 회의실'로 이름 지은 데 이어 건물 가운데 하나를 '김영옥 빌딩'으로 명명해 헌판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2009년 9월에는 미국 LA 한인타운 인근에 김 대령의 이름을 딴 김영옥중학교(Young Oak Kim Academy)가 문을 열었다. 2011~2014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에 김영옥 대령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김영옥 대령을 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자리에 모인 유럽 한인 차세대

올해 차세대 네트워크 공식 출범키로 의견 모아



유제현 유럽총연합회장(가운데) 등 유럽 거주 동포들이 지난해 12월 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 차세대 동포 행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유럽 각국의 동포 1.5세와 2세 등 한 **TT**인 차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유제현)가 주최하고, 이탈리아 한인회(회장 남호승)가 주관한 한인 차세대 행사가 지난해 12월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통일 한국의 주역 유럽한인 차세대'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유럽총연합회가 앞으로 유럽 동포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조직 결성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 최근 급진전한 남북 관계에 대한 유럽 동포사회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임원 20여 명과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등에 거주하는 20~30대 젊은 한인 40여 명 등 약 60명

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 유제현 회장은 개막식에서 "전 유럽을 하나로 묶는 차세대 조직이 아직 없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유럽 각국에서 활약하는 우리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해 체계적으로 교류할 경우 한인 동포사회가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호승 이탈리아 한인회장은 "유럽 한인 사회의 주역이 될 차세대 모임을 밀라노에서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모임이 초석이 돼 전 유럽을 아우르는 차세대 모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유제현 주밀라노 총영사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현지 주

류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동포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들이 통일 한국의 든든한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세대 동포들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유럽 전역의 차세대를 아우르는 공식 모임을 결성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차세대 조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올해 안에 세대 조직을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유럽 동포들의 관심을 반영해 주독일대사관의 김인호 통일관은 '한반도의 정세와 차세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최근의 남북 관계에 관해 설명하고, 남북 화해에 있어 젊은 층의 역할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동포 학생들로부터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통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지, 북한 주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편, 유제현 회장은 "독일통일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유럽연합(EU)을 매개로 각국이 통합한 경험이 있는 터라 유럽 동포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며 "내년(2019년)에는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특히 동서독 분단 현장에서 유럽뿐 아니라 한국 젊은이들도 동참하는 통일 캠프를 실시하는 등 통일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

‘글로벌한상드림’에 재외 동포 기부 잇따라

재외동포재단은 한상들로 구성된 사회공헌재단 ‘글로벌한상드림’에 재미 사업가인 홍명기 M&L홍재단 이사장이 10만 달러(약 1억1천200만 원)를 기부했다고 2월 19일 밝혔다.



재미 사업가 홍명기 M&L홍재단 이사장.

글로벌한상드림 이사로 활동 중인 홍 이사장은 올해 글로벌한상드림 법인 운영을 위해 기부금을 쾌척했다. 홍 이사장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 한상의 모국 기여가 우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 한상 리딩CEO인 정영수 CJ그룹 글로벌



정영수 고문(왼쪽),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경영고문이 1월 31일 ‘글로벌한상드림’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은 정 고문과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글로벌한상드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글로벌한상드림은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다진 재외동포 한상 기

업인들이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2016년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이다.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드림서포터즈’와 취약계층 청년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꿈을 잇다’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한민족 청년들을 후원하고 있다.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 대상 학위 취득과정 열려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교사의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 사이버대학교와 협력하여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위 취득과정을 지원한다. 재단은 이와 관련,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등 총 6개교와 MOU를 체결했다.

과정명은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과정’이며 졸업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재외 공관에 등록된 한글학교 교사로 인터넷 수강이 가능한 자, 또는 향후 3년 이상 한글학교 교사로 재직할 예정인 자는 본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MOU 체결에 따라 해당 과정 수강자에게는 학교 장학금(수업료 40%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 외에 재단 장학금(54만원, 35명 선발) 등이 부여된다. 과정 지원자 세부 학력 기준 등은 각 대학 입학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단 장학금 등 상세 내용은 +82-64-786-0267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http://study.korean.net>를 참고하면 된다.

재단,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수시위원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2월 8일 재단 제주 본사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수시위원회’를 열었다.

재단은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인회 등 한인 단체가 거주국에서 시행하는 관련 기념식, 기념행사, 학술대회 등의 지원을 위한 수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포사회의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수시 지원으로 진행되는 동포단체 행사는 해당 지역 차세대 대상 3·1절 영상 제작 공모 진행, 차세대 워크숍 등 인식 제고 사업, 베이징 및 인근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전파하기 위한 사료 및 학술논문 연구, 현장답사 등의 조사 연구 활동, 기타 기념 음악회 등 문화예술 활동 등이다. [▶](#)



바른 말 고운 말

섬뜩하다

“그 사건은 듣기만 해도 매우 섬뜩합니다.” 신문 기사 중에 이렇게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섭고 끔찍하다고 할 때 ‘섬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섬뜩하다’가 아니라 ‘섬뜩하다’입니다. 따라서 앞의 예문은 “그 사건은 듣기만 해도 섬뜩합니다”로 고쳐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찬 손을 내 몸에 대서 갑자기 놀라거나 찬 느낌을 받을 때 쓰는 표현으로, ‘선뜩하다’ 또는 ‘선뜩하다’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 찬물로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할 때 ‘얼굴이 선뜩거리다’ 또는 ‘얼굴이 선뜩 선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말로 ‘선뜻’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 또는 ‘내 친구가 나의 부탁을 선뜻 들어 줬습니다’와 같이 ‘가볍고 빠르고 시원스럽게’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매형, 자형, 매부

“이번에 우리 매형이 부장으로 승진하셨어.”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호칭어와 지칭어인데도 어떻게 불러야 맞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그 배우자의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대화에서처럼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매형’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이 옳은 표현 일까요? 한자의 ‘손위 누이 자(姉)’자는 누나를 가리키는 말인데 반해서, ‘누이 매(妹)’자는 손아래 누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위든 손아래든 그냥 누이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매부’라는 말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누나의 남편을 가리킬 수도 있고, 누이동생의 남편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누나의 남편은 ‘매부’, ‘매형’ 또는 ‘자형’이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이동생의 남편은 ‘매부’나 ‘매제’ 또는 ‘~서방’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 오른쪽 방향 열쇠

- 배우들의 분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 백일장, 시장 따위가 끝남. 여러 사람이 모여 하던 판이 끝남
- 섭취하는 음식물의 품질, 성분, 분량 등을 과학적으로 조절해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방법
- 경마나 곡에 따위에서 말을 타는 사람
- 얇은 대오리를 엮어 만든 지리
- 사물의 가장 중요한 요점 또는 핵심, 과녁의 한복판이 되는 점
- 실제로 보고 듣거나 몸소 겪음
- 왕후가 낳은 임금의 딸
- 밥을 푸고 난 술에 물을 부어 끓인 것
- 어떤 사람을 사랑하여 몹시 그리워함
- 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바퀴 바깥 둘레에 끼는, 고무로 만든 테
- 앞을 향한 쪽, 적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지역
-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
- 목적하는 바를 이룸
- 삼한 시대, 마한에 속한 54국의 하나

- 한정된 개인 또는 집단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방법
- 육상 경기에서, 먼 거리를 달리는 경기. 보통 5천m와 1만m를 이른다
- 확대경이 달린 조그만 구멍을 통해 그 속의 여러 가지 그림을 돌리면서 들여다보는 장치나 장난감. 만화경
- 암수의 생식 세포가 새로운 개체를 이루기 위해 하나로 합쳐지는 일
- 지세가 험하여 높고 가파름
-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대상의 모든 것에 예외 없이 유효하고 타당한 성질
- 널리 공개하여 모집한 작품의 전람회나 전시회
- 어릴 때는 담수에서 살다가 크면 바다로 내려가는 회귀성 어종. 온대와 열대 지방에 널리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과 영산강 하류, 청천강의 어귀에서 많이 난다
-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겠다는 의욕과 자신감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음성이나 영상을 보내는 기관
- 남들의 주의나 시선, 귀와 눈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면허를 얻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

▶ 2018년 12월호 정답

금	강	산	비	지	과	꽃
모	정	부	구	조	샘	
으	청	자	본	유	추	
기	지	개	물	자	위	
	지	구	망	부	석	
장	도	리	초	연	누	
타			황		오	이
령		기	진	맥	진	지
	어	린	이	품	평	회

▶ 아래쪽 방향 열쇠

- 어떤 대상이나 그 주변에서 풍겨 나오는 느낌
- 교도소나 유치장에 갇힌 사람에게 사사로이 마련해 들여보내는 음식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

송지나(중국) 2018년도 재외동포문학상 '글짓기' 초등 부문 최우수상

내가 다니는 중국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중국 아이 제니퍼이다. 지난 토요일, 나는 그 아이의 집에서 하는 파자마파티에 초대되었다. 같이 모인 반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먼저 노래방에 갔다. 중국어 노래와 팝송인 영어 노래도 불렀지만, 중국 아이들에게도 유명한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노래를 부를 땐 중국과 대만, 일본 아이들도 다 따라 불러서 한국인인 내 어깨가 으쓱해졌다.

노래방에서 열심히 놀고 우리는 제니퍼의 집에 갔다. 제니퍼 아버지는 직업이 요리사이셔서 아주 풍성한 저녁밥을 준비해 주셨다.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중국에 와서 계속 살아온 나는 우리 엄마도 못 드시는 중국 '향채(고수)'라는 채소도 잘 먹고, 여러 가지 특이한 중국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친구의 집에서 평소 집에서 보지 못한 세 가지 고기를 먹어 보았다. 고기를 잘 먹는 나는 세 접시의 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

밥 한 그릇을 푹딱 먹은 후 부른 배를 만지면서 '이게 무슨 고기이냐?'고 여쭙봤더니, 제니퍼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다.

"이건 토끼 머리, 이건 오리 목, 그리고 이건 개구리아."

난 순간 당황했다. 내가 그런 걸 먹었다니! 제니퍼 아버지는 이걸 중국식 요리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거라고 하시며 제니퍼 가족이 즐겨 먹는 요리라고 하셨다. 나는 침을 크게 꿀꺽 삼키고 진정했다. 그때 머리에 떠오르는 말은 딱 한 줄이었다. '와, 중국 사람은 책상과 비행기 빼고는 다 먹는다더니, 정말 대단하다.'

저녁밥을 먹은 후 나는 우리 집에서 하던 대로 샤워를 했다. 아주 시원하게 물로 씻은 후 제니퍼에게 물었다.

"너는 목욕 안 해?"

"난 어제 머리 감았어, 보통 3일에 한 번 머리 감아."

나의 의아한 표정을 본 친구는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해주었다. 중국집은 겨울에도 추우므로 목욕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고, 물값도 아주 비쌌기 때문에 자주 목욕하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하였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종종 중국사람들에게 났던 냄새에 대해 그제야 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니퍼 아버지는 우리를 이른 아침 6시에 깨우셨다. 보통 일요일에 늦잠을 자는 나는 왜 이렇게 일찍 깨우시느냐고 했더니, 제니퍼 아빠가 아침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어린이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니 빨리빨리 일어나라고 하셨다. 나는 '빨리빨리'는 한국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제니퍼의 가족들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한국어 단어 빨리빨리, 오빠, 그리고 강남스타일은 안다고 해서 한참을 웃었다.

운동을 다 한 다음에 제니퍼 아버지는 시장에 가셨다. 금방 돌아오시자마자 '밥 먹자' 라고 하시며,

“어떻게 아직 요리를 안 했는데 밥을 먹어요?”

하고 여쭙보니 제니퍼 아빠가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어제저녁에 죽은 다 끓여놔고, 시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전병과 전병소스, 두유를 사 왔단다.” 하셨다. 우리 집은 아침으로 보통 엄마가 만드신 밥이랑 국, 김치를 먹는다. 하지만 중국 사람은 죽이나 전병을 아침으로 먹는다. 전병을 전병소스에 발라먹으니 맛있었다. 그런데 죽을 먹으려고 하니 제니퍼 엄마가 젓가락을 주셨다. 제니퍼네 가족은 죽그릇을 들어서 입에 대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죽을 먹었다. 나는 '어떻게 젓가락으로 죽을 먹지?' 라고 생각했지만, 제니퍼네 가족을 따라서 먹었다. 친구의 가족들이 하는 행동을 같이 해보는 것이 내가 중국 친구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침을 다 먹은 후 제니퍼네 가족은 '꺼억' 하면서 큰소리로 트림을 했다.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면 예의 없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지만, 평소 학교에서도 많은 친구가 트림을 하므로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나는 밥을 다 먹은 후, 좀 짜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제니퍼가 안 된다고 하였다. '왜?' 라고 물으니, 중국에서는 밥을 다 먹고 바로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아프진다고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조금 참고 30분 정도 후에 마시라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밥을 먹고 트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버릇이라고들 하지만, 유럽에서는 트림은 괜찮게 생각하나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재채기는 좋은 버릇이 아니라고 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나라마다 사는 모습이 다 다르니 그 나라 사람들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외국 친구들을 사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학교의 반 아이들과 있으면 나를 중국아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다. 10년이 넘게 살다 보니 중국, 특히 상하이 는 나에게 낯설지 않은 곳이다. 한국과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른 중국생활, 정말 특이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며 나는 하루하루 재미있는 중국생활을 하고 있다. **창**

“겨울축제 역사 새로 썼다” 강원도 ‘화천산천어축제’ 대박!

13년 연속 100만 명 넘어... 올해도 184만 명 찾아, 축제 수입 60억 원 규모



1



2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떠오른 ‘2019 화천산천어축제’가 역대 최단기간, 최다 관광객이 찾아 한국 겨울축제 역사를 새로 썼다. 강원도 화천군과 재단법인 나라는 축제 개막일인 1월 5일부터 폐막일인 27일까지 23일간 집계한 관광객을 184만 명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73만 명보다 6%가량 늘어난 것으로, 16회 축제 역사상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축제로 기록됐다. 인구 2만7천 명에 불과한 최전방 산골 마을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13년 연속 관광객 100만 명이 넘는 ‘밀리언 페스티벌’ 흥행 신화를 세우고 폐막했다. 추위와 자연의 강, 산천어로 기적의 흥행 돌풍을 새로 쓴 산천어축제는 내년 새로운 버전의 축제를 예고하고 있다.

‘하늘이 도운 날씨’ 성공 예감... 외국인 역대 최다 기록

축제 흥행을 일찌감치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예고됐다. 연초에 불어 닥친 한파가 축제장 얼음 두께를 30cm 이상 열게 했다. 여기에 산골 마을 추위가 만든 자연 결빙과 축제장 수위 조절이라는 화천군 노하우가 성공 축제를 이끌었다. 화천군은 2.1km에 걸친 화천천에 얼음구멍 개수를 2만 개까지 뚫고 매일 얼음 밀 안전점검을 하며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정부는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이어 지난해 말 ‘글로벌 육성축제’로 체

급을 올려줘 축제에 신바람을 불어넣었다. 축제가 개막되자 ‘구름 인파’가 뿜어내는 축제 열기는 한파 기세를 단번에 꺾었다. 얼음구멍 아래 꼭꼭 숨은 산천어와 조우하려는 관광객 인파는 산골 마을 화천천을 감동의 파노라마로 연출했다. 연론이 앞다퉀 전송한 하늘에서 조감한 한겨울 산천어 낚시 풍경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연 그대로를 스크린으로 옮긴 장면은 산천어와 사람이 대본 없이 엮은 논픽션 다큐멘터리로 소개됐다. 팔뚝만 한 산천어를 맨손으로 끌어 올리는 맨손 잡기 체험 장면도 국내외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개막일 14만3천여 명을 시작으로 두 번째



산천어축제를 앞두고 얼음조각광장이 개장했다(좌). 불 밝힌 화천산천어축제 선등거리.



3

주말을 맞은 1월 12일 축제 역사상 하루 동안 가장 많은 23만여 명이 몰렸다. 급기야 지난해 축제보다 사흘 빠른 개막 9일 만에 누적 관광객 100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단기간 돌파 기록도 세웠다. 이를 통해 13년 연속 관광객 100만 명이 넘는 축제라는 금자탑도 쌓았다.

축제 흥행 분위기는 단연 외국인 관광객이 돋웠다. 올해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가장 많은 14만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화천군은 이중 단체 여행 상품이 아닌 자유여행을 통해 온 외국인 관광객이 40여 개국 2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랍권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무슬림 관

광객도 증가하자 축제장 내에 기도시설까지 만든 관심과 정성이 낳은 결과다.

축제 수입 60억 원 육박... 상품권의 경제학

축제 흥행은 고스란히 지역 경기로 흘러들어 갔다. 화천산천어축제가 올해 자체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6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군의 가집계 결과 23일간 축제장 내 공식 부스와 프로그램을 통한 수입이 58억2천여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49억5천여만 원보다 18%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사상 최고 실적이다. 여기에는 화천시장조합과 화천읍 내 농특산물 판매장 수입이 합산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60억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전체 수입금 규모 중 재단법인 나라의 재단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18.7% 증가한 약 3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수치에는 산천어 식당, 기념품 판매소, 외국인 구이터, 놀이기구 대표실적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화센터, 공식 먹거리터, 매점을 비롯해 산타우체국, 집라인, 실내얼음조각광장, 맨손잡기, 외국인 낚시터 등이 도움이 됐다. 아울러 산천어축제와 함께 열린 각 마을(사내면, 상서면, 간동면)축제도 총 3억5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내년에는 체류하는 관광객 유치에 위해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고 전용 낚시터에서 축제를 즐기는 패키지 관광상품을 추진하겠다”며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향상된 축제를 만들어 실질적인 지역 경기를 끌어 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참]**

1. 2019 화천산천어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산천어 맨손 잡기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2. 2019 화천산천어축제 폐막을 하루 앞둔 1월 26일 오전 강원 화천군 화천천의 축제장이 겨울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3. 2019 화천산천어축제 폐막일인 1월 27일 오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축제장에 외국에서 온 어린이 관광객이 낚시하고 있다.

2019년 OKFriends 봉사단 모집 안내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의 일원이 될 '2019년도 제8기 OKFriends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OKFriends 봉사단'은 재단에서 매년 7~8월에 실시하는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초청연수 및 여러 초청사업의 진행 요원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들과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간의 이해와 소통을 지원하며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데 관심



과 열의가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며 코리안넷 홈페이지(<http://www.korean.net/>)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okfriends@okf.or.kr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82-64-786-0273)나 이메일 (okfriends@okf.or.kr)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할 [통]

함니다

74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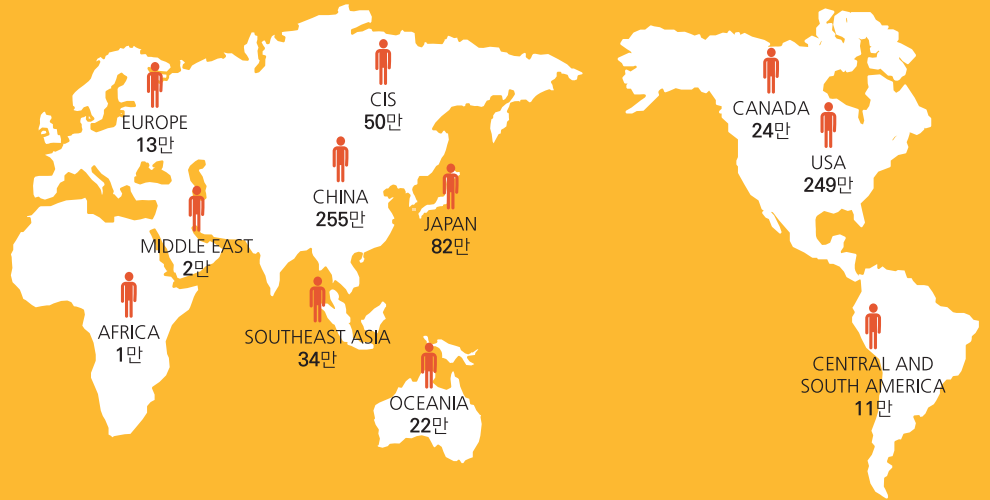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